● 특집 /
'88진단

● '88년을 보내며

검정사업을 돌아본다

김 형 균
(본회 종돈능력검정소 소장)

가축의 능력을 검정하여 그 검정성적을 기초로 엄격한 외모심사를 거쳐 합격된 돼지를 경매에 상장한다. 경매에 참가키 위하여 멀리 제주에서부터 전국 각처의 양돈인들이 모이고 서로가 성적이 좋은 돼지를 낙찰하기 위하여 4백~5백만원의 거금을 아낌없이 응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까지는 본 협회 회장님이하 관계인들과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원매자가 직접 돼지를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에 협조와 보조를 해 주신 농정 담당자, 그리고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출품해주신 양돈의 선구자들과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해 주신 전 양돈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린다.

아울러 검정소가 오늘의 양돈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검정소 운영과 제도입안에 참여한 당국 관계자들에게 전 양돈인의 이름으로 축산업계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상을 주어야 한다. 가축의 개량이 1~2년에 이루어 질 수 없을진데 양돈산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량케 선구자들에게 어찌 포상을 주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만, 내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생각해 본다.

첫째, 시설면에서

선임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이였으나, 사회산업 여건의 비성장(무창돈사의 단열재, 환기시스템 등)등으로 지금에 와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간의 사용으로 시설물의 부식 등 시설의 일부를 수선 및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금년 월동준비로 보온과 환기를 위하여 연탄에서 경유로 교체했으며, 월동기의 불합격율을 (50~60%)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관리면에서

입식돈의 철저한 예방과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와 검정돈의 사료허실량의 정확한 보충과 체중측정 및 등지방 측정을 철저히 한다. 특히 검정 종료후 방목장에서 발생되는 지제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개선하여 타고난 유전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셋째, 제도면에서

1) 경매대금의 조속한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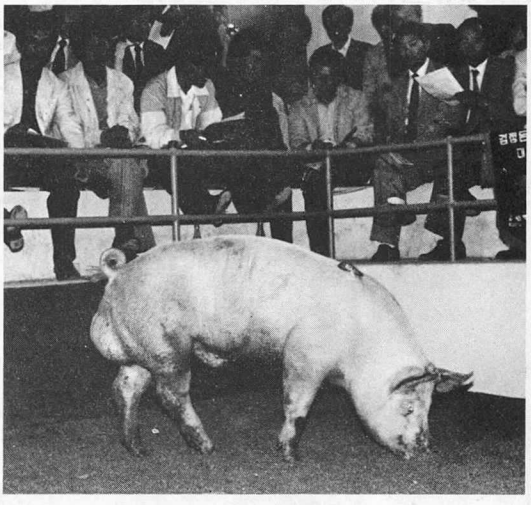
2) 불합격돈의 해당 농장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 드리며,

3) 중지돈과 불합격 예상돈의 발생 경우 즉시 농장에 통보하여 협의 후 처리하고 있으며,

4) 폐사돈의 발생시 출품농장에 통고함과 동시 즉시 위험 분담금을 송금하고 있으며,

5) 종돈판매의 저변 확대와 다양해지고 있는 하자발생의 종류와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8월부터 외모심사를 강화하였다. 구매자는 AR, 무정충, 승가불능의 경우에도 2개월 이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하자 요청도 불가하니 경매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바란다.

6) 제2검정소 설립을 5억5천7백만원의 보조로 정부가 승인하여 현재 경남 하동에 벌채 작업중이며, 내년 5월경에는 입식이 가능, 출품희망 전두수를 수용함은 물론 암퇘지의 검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 협찬금 6천1백만원중 8%인 5백만원 정도가 입금된 상태)



그러면 검정업무에 향후 개선코저 하는 점을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실정에 맞는 선발지수식의 개발을 위하여 10-20년간의 한국양돈이 나가야할 목표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이런 거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 양돈의 선구자인 농장에서 자조금 형태의 연구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2) 검정소 출품돈의 품종별 최우수돈을 선발하여 매년 월간양돈에 홍보, 시상토록 해야 한다.

3) 경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타이머를 사용, 두당 경매시간이 3분 초과할 시는 한번에 응찰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농장검정의 품종별·성별성적과 검정소 성적의 분석·집계를 위하여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한 검정실적 통계를 보고할 것이다.

5) 검정위원회의 분과별 운영제도 도입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빙하여 현실성 있는 검정 규정을 개정·운영하도록 하겠다.*